

광주시, '중견·중소기업 개방형 혁신전략 사업' 추진

인디제이 등 창업기업 7개사 선정 올해 첫 도입...상생협력모델 구축 시제품·실증 등 최대 3천만원 지원 "기술혁신·판로 확보·매출액 향상"

광주시가 '중견·중소기업 개방형 혁신 전략(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국 중견·중소기업과 광주창업기업이 협업을 통한 상호 기술혁신과 상생협력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마련됐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 기업 교류행사를 2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열린 이 행사에는 중견·중소기업 14개사와 창업기업 54개사가 참여, 협업 가능한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이후 협업사업 소재와 기업역량 등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개방형 혁신전략사업에 참여할 광주 창업기업 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상향·감정 인공지능(AI)전문기업 ㈜인디제이(대표 정우주) △반도체 소자 전문기업 ㈜웍스(대표 김세민) △응용소프트웨어개발과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기업 ㈜올아이원(대표 김중우) △스마트 시스템 제어장치 전문기업 ㈜에스이알(대표 장중휘) △시제품 설계 비즈니스 모델 및 제조 전문기업 청연(대표 차정민) △금속흡음전장재 전문기업 ㈜세르보테크(대표 안병근) △수전해 및 수소연료전지 소재·부품 전문기업 ㈜이에스티솔루션(대표 김동호)이다.

이들 기업은 중견·중소기업과의 협업 사업과 관련한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실증(PoC)비용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에 참여한 지역 창업기업 대표 A씨는 "중견기업과 논의하며 기술 소재 구상에 도움을 받았다"며 "창업기업이 중견 기업을 만날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중견기업 이사 B씨는 "창업 기업과 만남을 통해 오히려 사업 영역 확장에도 도움이 됐다"고 호평했다.

'중견·중소기업 개방형 혁신전략사업'으로 중견·중소기업은 창업기업의 신기술 도입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창업기업은 기술 발전과 판로확보 등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최회 경제창업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광주 창업기업은 기술혁신과 판로 확보, 매출액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창업기업이 대·중견·중소기업 등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 어등산 복합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 속도

사업자, 토지비 중도금 77억 납부 사업기본계획·설계용역 동시 추진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 개발이 협약 이후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광주시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 개발' 민간개발자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협약에서 정한 토지비 1차 중도금 77억4000만원을 광주도시공사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신세계프라퍼티의 협약이행보증금(116억원) 및 토지계약금(86억원) 납부, 3월 현지법인인 '㈜스타필드광주' 설립과 기본계획(MP)·설계용역 계약 체결에 이은 후속조치다.

'㈜스타필드광주'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 개발사업의 기본계획(MP)과 설계용역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앞서 광주도시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해 12월 22일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2025년 하반기 펜스 설치 등 사전 준비를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가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와 '콘도'는 2030년, '레저타운'과 '부대시설'은 2033년 완료하는 등 어등산관광단지가 최종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의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관광·휴양·문화·레저와 쇼핑을 함께할 수 있는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세부계획이 나오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하반기 개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하반기 의장과 의원들이 16일 전남도의회 하반기 개원 행사에 앞서 의회동 계단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물놀이장 운영

어린이 발물놀이터 '썸머패키지' 오토캠핑장 등 부대시설 '인기'

전남도는 오는 20일부터 여름방학,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어린이 안전 물놀이장인 발물놀이터 등 썸머패키지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발물놀이터는 수심 30cm 이하로 깊지 않아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안전한 물놀이장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를 위해 매주 물 교환, 수질 검사를 진행하며, 안전요원도 상시 배치할 예정이다. 이용 대상은 3세부터 12세 사이의 유아 및 어린이로, 레저카트와 VR가상체험관 패키지 이용 고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8월25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제외)로, 성수기인 7월29일부터 8월9일까지는 정기휴무일인 매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주중에도 운영한다. 우천 시에는 휴장된다.

발물놀이터 개장과 함께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운영하는 레저테마파크도 눈여겨볼만하다. 테마파크 내부 중 카트장은 F1서킷을 축소 조성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신나는 스피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레이싱 카트를 즐길 수 있으며, 라이선스가 없는 일반인은 레저카트와 바이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VR가상체험관에서는 가상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시뮬레이터 모션 체험 영상관을 비롯해 시뮬레이터 카레이싱 기구 6종을 즐기며 스티لمان점포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오토캠핑장, 넷어드벤처, 짚와이어, 자전거 도로 등도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부대시설도 많다.

한편 지난해에도 총 12만8000명의 사람들이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을 다녀갔으며, 이 중 2만5000명이 카드장 등 부대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대시설 확대 및 다양한 패키지 운영으로 모터스포츠 마니아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쾌적한 힐링 명소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오지현 기자

광주관광공사, 베트남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시동

전남·북 공동 여행업체 공동팸투어 무안공항 연계 호남권 상품 개발

광주관광공사가 전남관광재단 및 전북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호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여행업체 21개사 관계자 27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4일간 공동팸투어를 실시했다.

16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팸투어는 호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여행업체 대상 호남권 공동팸투어를 추진했다.

이번 팸투어는 '광역권 관광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관광상품 기획을 위해 광주와 담양, 여수, 순창, 전주 등 지역의 주요 관광코스를 답사했다.

팸투어 일정은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여수에서 1박 후, 2일차에 광주일정으로 양림동 일대의 팽귤마을과 근대역사문화마을, GMAP(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광주향교(다도, 전통혼례체험), 광주공연마루 판소리 공연 등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 선보이고 이후 순창, 전주로 연결하는 일정으로 운영됐다.

이번 팸투어에 참가한 보문베트남지사 응우옌 반 안(Nguyen Van Anh) 대표는 "호남권 관광지 투어를 통해 한국의 맛과 전통 그리고 현대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이번 참가자들과 함께 광주를 포함한 좋은 관광상품을 기획해 다시 찾아 오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자치경찰위, 여름 휴가철 종합치안대책 마련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제 100차 정기회의를 열고 하절기 범죄예방 종합치안대책 등 올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하고, '2024년 영광·함평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결과 보고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논의 사항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하절기 범죄예방 종합치안대책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계획 △위기 청소년 등 선도보호 강화 활동 운영계획 △우리동네 교통환경개선 경과 등 8건으로, 자치경찰위원, 사무국, 전남경찰청 부서장이 함께 중점 업무 및 세부 실행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위원회 운영 △과학기술을 접목한 치안 안전망 확충으로 '안전전남' 실현 △사회적약자를 위한 치안서비스 강화 △내실있는 자치경찰 활동으로 인지도 제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죄 예방환경 개선 등 12개 과제다.

특히 여름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범죄·112신고 등 치안 수요 증가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선제적 예방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하절기(6~8월) 치안 수요 분석 후 증가가 예상되는 범죄 유형을 위주로 종합대책을 세워 맞춤형 예방활동도 펼친다.

오지현 기자

강기정 시장, 직무수행 평가 특·광역시 2위

한 자릿수 진입...17개 시도 중 9위

각 광역자치단체장의 긍정 평가 순위에서 강기정(사진) 광주시장에 2년여만에 한자릿수로 진입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강 시장의 긍정평가는 46.6%로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9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특·광역시로만 압축했을때 김두겸 울산시장(47.4%·전체 8위)에 이어 2위이며 유정복 인천시장(46.5%로 뒤를 이었다.

강 시장이 10위 안에 진입한 것은 민선 8기 출범 초인 2022년 8월 이후 처음이며



지난 5월 직무수행 평가인 43.2%보다 3.4% 포인트 상승했다.

직무수행 평가 1위는 김관영 전북지사로 60.5%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 56.1%, 경기 김동연 54.8%, 이철우 경북지사 52.6%, 김태홍 충남지사 50.6%, 박완수 경남지사 48.9%, 김진태 강원지사 48.5% 순이다.

전국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세종이 69.9%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66.3%, 대전 65.5%, 경남 63.9%, 강원 63.1%, 6위 서울 62.6%, 울산 61.4%, 충북

61%, 전남 60.3%, 충남 59.4%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반기 끌어왔던 중앙공원 1지구, 복합쇼핑몰, 옛 방직공장 부지 개발 등의 각종 현안을 강 시장이 풀어가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5월28일~6월2일과 6월27일~7월1일 전국 18세 이상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2023년 12월 말)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광역단체별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3.5%P, 응답률 2.3%이다.

노병하 기자